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1월 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4.3%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0.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4.4%).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8%).

◆ 2022년 1월 소비는 전월대비 1.9%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2.5%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6.0%), 의복 등 준내구재(-3.4%)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9% 감소함(전년동월대비 +4.5%).
-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0.6%) 투자가 줄었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12.0%)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2.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6%)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5%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15.8%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p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p	1월	12월p	1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0.2	1.3(6.8)	-0.3(4.3)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2	0.4	3.7(7.4)	0.2(4.3)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4	0.4	3.7(7.6)	0.1(4.4)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6.1	6.0(0.5)	0.5(6.8)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0.3	-0.4(5.8)	-0.3(4.8)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1.6	2.2(6.8)	-1.9(4.5)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5.6	2.2(6.6)	2.5(0.6)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5	0.6(3.6)	0.6(3.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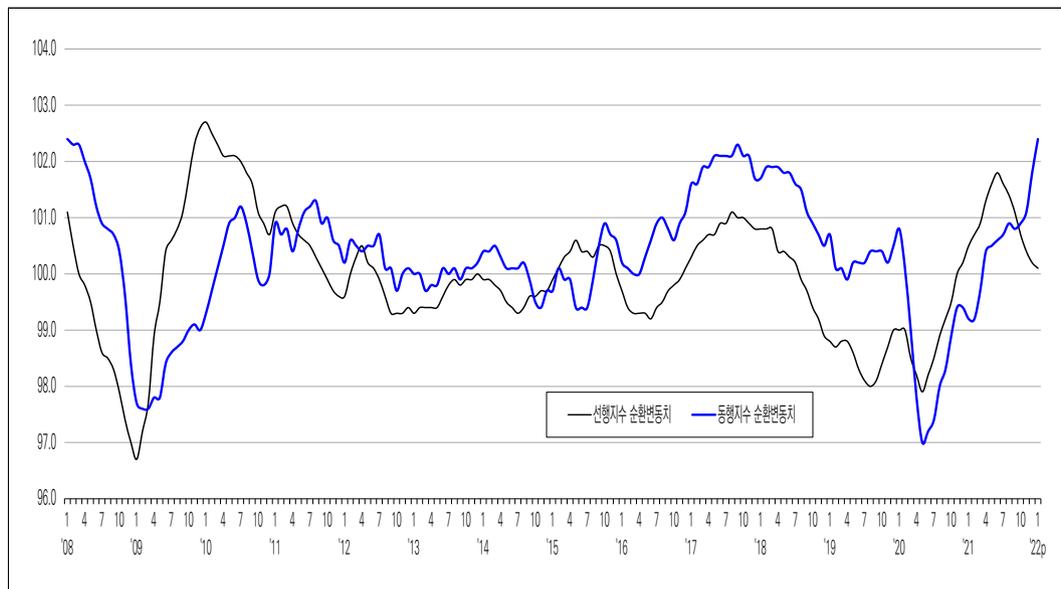
◆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전월대비 0.9% 상승)

-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1.8%), 주택·수도·전기·연료(0.8%), 음식·숙박(0.8%), 기타 상품·서비스(1.2%), 식료품·비주류음료(0.4%), 교육(0.2%), 의류·신발(0.2%), 주류·담배(0.5%)는 상승,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은 변동 없으며, 오락·문화(-0.2%)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8%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1.0% 상승하여 전월대비 0.9% 상승함.

◆ 2022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8%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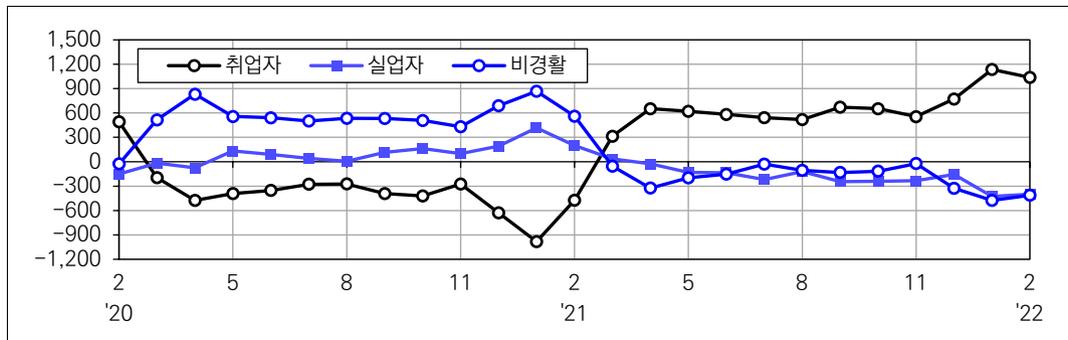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

○ 2022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3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41만 7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2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2월은 4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20대, 30대,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전월대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함.
- (종사상 지위별) 2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상용직은 정보통신,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보건복지 및 예술스포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일용직은 건설업, 음식숙박 및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전월대비로는 임시직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
- (일시휴직자) 2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1월 -32만 3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6만 명 증가함.
- (실업자) 2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9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1월 -42만 7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5만 8천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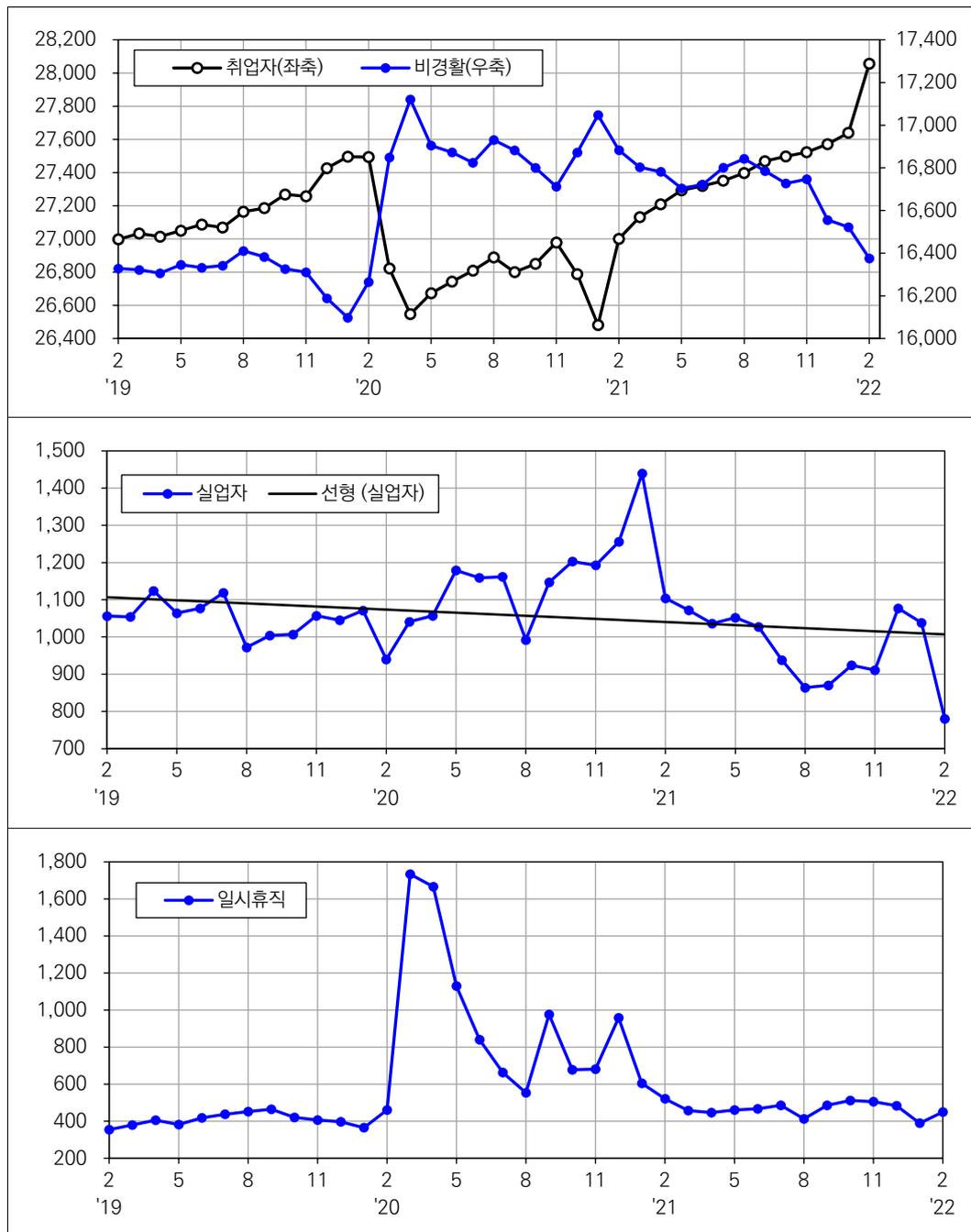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40대와 5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20대, 30대 및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주로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60세 이상은 숙박음식,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5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함.
- 전월대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자 및 비경활인구는 감소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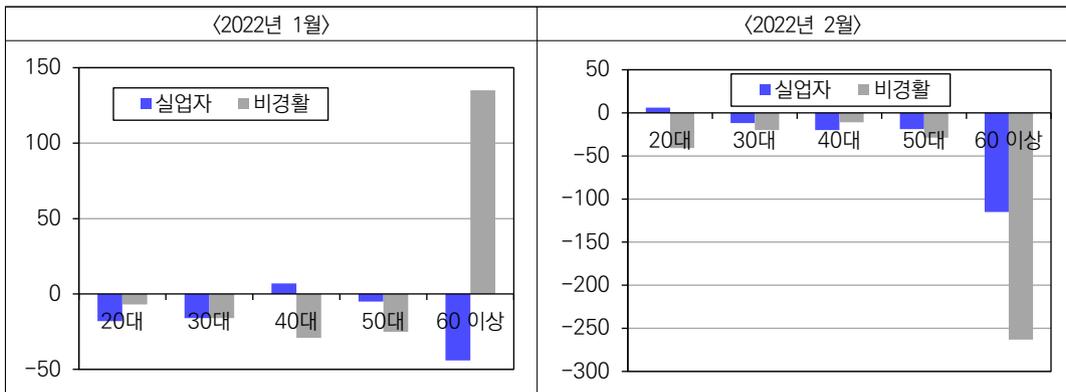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26	49	45	(1)	240	273	219	(20)	-11	22	15	(21)
실업자	2	1	1	(-1)	-86	-129	-122	(6)	-65	-97	-76	(-12)
비경활	-133	-154	-142	(-5)	-210	-216	-182	(-41)	-52	-62	-74	(-20)
실업률	0.1	-2.7	-2.2	(-0.6)	-2.5	-3.6	-3.3	(0.1)	-1.2	-1.7	-1.4	(-0.2)
고용률	1.5	2.4	2.2	(0.1)	4.2	4.9	4.1	(0.4)	1.3	1.8	1.7	(0.4)
	40대				50대				60세 이상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13	24	37	(25)	214	245	272	(52)	290	522	451	(424)
실업자	-29	-36	-30	(-20)	-56	-86	-110	(-19)	77	-80	-61	(-115)
비경활	-47	-64	-80	(-11)	-135	-139	-135	(-29)	250	159	201	(-263)
실업률	-0.5	-0.5	-0.5	(-0.3)	-0.9	-1.4	-1.8	(-0.3)	1.1	-2.4	-1.5	(-2.1)
고용률	0.8	1.0	1.2	(0.4)	2.3	2.7	2.9	(0.6)	0.3	2.3	1.6	(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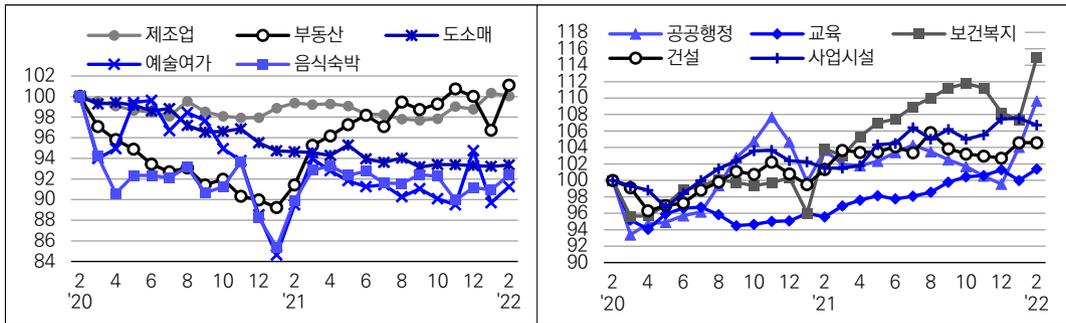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사업시설이 감소함. 도소매, 건설은 정체된 반면 부동산, 예술여가, 음식숙박,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는 개선됨.
-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35	88	49	76	56	-1	131	8.9
광업	-2	0	-1	0	2	0	2	18.2
제조업	37	66	32	-12	70	-13	45	1.0
전기·가스·증기	3	6	5	-1	2	-1	0	0.0
수도·원료재생	11	13	18	4	-2	3	5	2.9
건설업	40	100	65	-5	38	0	33	1.6
도매 및 소매업	-80	-56	-47	-3	-3	5	-1	0.0
운수 및 창고업	127	121	135	-4	4	24	24	1.5
숙박 및 음식점업	66	128	55	28	-5	33	56	2.7
정보통신업	82	106	128	-10	8	31	29	3.1
금융 및 보험업	25	-15	-4	6	-17	11	0	0.0
부동산업	54	41	53	-4	-18	24	2	0.4
전문·과학·기술	92	115	105	16	6	-4	18	1.4
사업시설관리지원	69	71	69	26	1	-11	16	1.1
공공행정·사회보장	-56	40	62	-11	50	63	102	9.1
교육서비스업	115	74	106	13	-24	26	15	0.8
보건 및 사회복지	174	250	254	-71	-21	179	87	3.3
예술·스포츠·여가	32	25	8	27	-26	8	9	2.0
협회·단체·수리·기타	-29	-21	-32	-9	-18	3	-24	-2.1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8	-15	-19	-2	-4	-4	-10	-11.6
국제 및 외국기관	-4	-1	-2	-1	1	0	0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2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정보통신,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보건복지 및 예술스포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일용직은 건설업, 음식숙박 및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에서 감소 전환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전월대비로 취업자는 상용직과 특히 임시직에서 크게 증가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652	686	767	72	129	114	315	2.1
임시직	119	377	342	-149	-34	301	118	2.5
일용직	-74	-60	-149	-20	-41	0	-61	-5.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3	54	39	28	-11	-8	8	0.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6	81	75	34	21	10	65	1.5
무급가족종사자	-13	-4	-38	14	-10	-3	1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11	-2	-3	5	8	7	7	0	6	5	7	10	41	66	35
제조업	40	58	51	-10	10	10	3	-4	-22	5	12	4	-12	-18	-16
건설업	72	82	88	-10	26	16	-39	-20	-60	7	12	13	4	6	9
도소매	16	33	42	-20	5	-11	-31	-28	-28	3	10	8	-23	-41	-27
운수창고	61	61	46	6	-3	7	-4	-3	5	2	-1	1	59	67	75
음식숙박	-19	-2	-1	74	94	93	-15	-7	-48	16	11	-9	-2	9	7
정보통신	81	101	124	12	9	10	3	5	3	5	3	2	-19	-12	-11
금융보험	-1	-26	-20	34	21	26	-4	-2	-3	-2	-6	-3	-1	-2	-4
부동산	51	30	38	11	16	10	2	-2	1	-2	-2	0	-10	-4	1
전문과학기술	115	118	112	-12	3	-1	-4	-4	-5	-3	-4	-5	-1	6	7
사업관리지원	27	24	34	14	31	25	17	9	2	0	-4	-3	7	4	7
공공행정	35	21	41	-83	17	19	-8	3	2	-	-	-	-	-	-
교육서비스	47	37	60	51	18	28	-1	1	0	1	3	4	9	8	10
보건복지	117	128	141	44	117	105	-1	-5	2	18	14	10	-4	-3	-2
예술스포츠	2	-7	-5	9	12	2	0	-4	-3	-5	-3	0	28	31	25
협회단체	16	21	6	13	7	9	-2	-1	-1	0	1	5	-41	-36	-42
가구 내 고용	3	1	1	-22	-17	-18	2	1	-1	0	0	0	-1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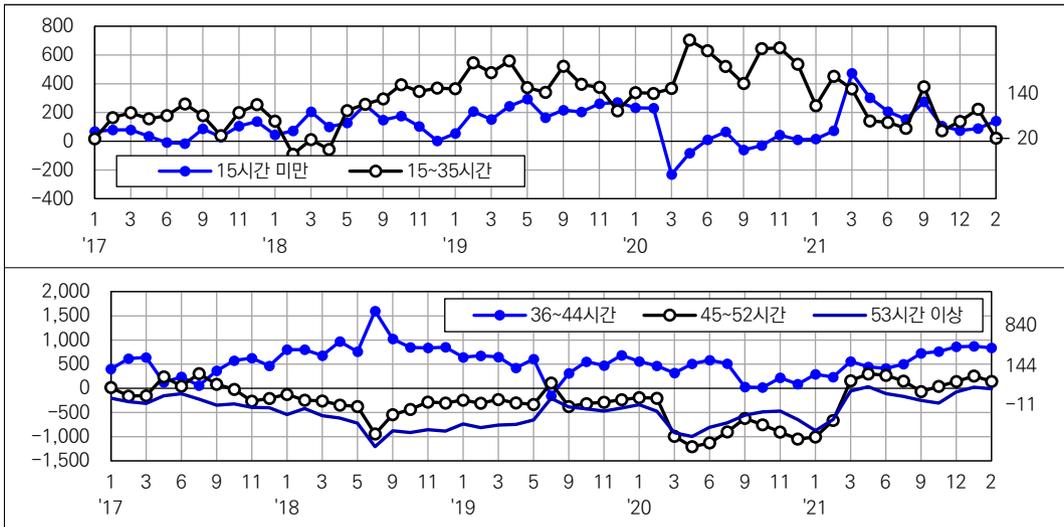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2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7시간으로 전년동월과 같음.

-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일시휴직자 및 4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감소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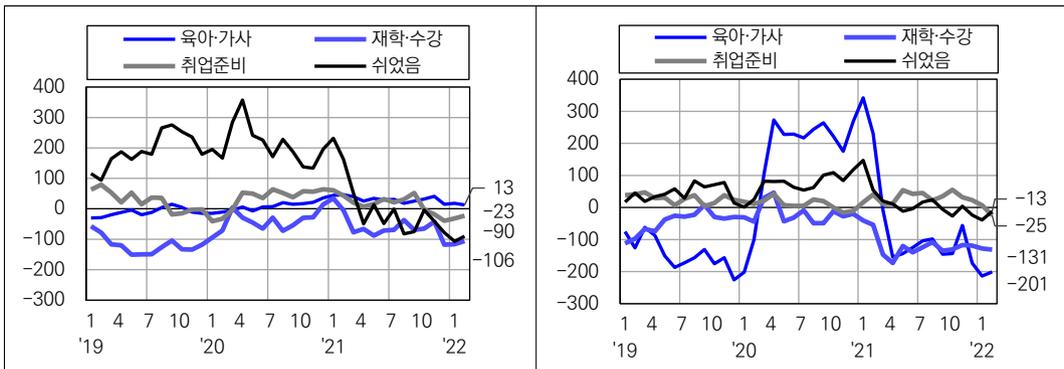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1만 2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1월 -47만 6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5만 명으로 재학·수강, 취업준비 및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26만 2천 명으로 쉬었음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취업준비가 감소 전환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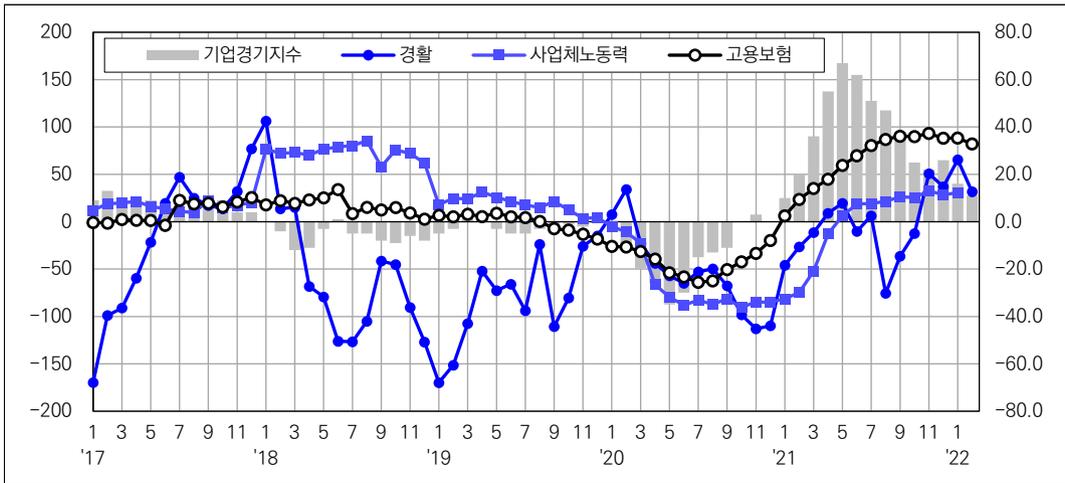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소폭 확대

○ 2022년 2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3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기존 흐름을 유지하며 증가세가 지속됨. 피보험자는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2천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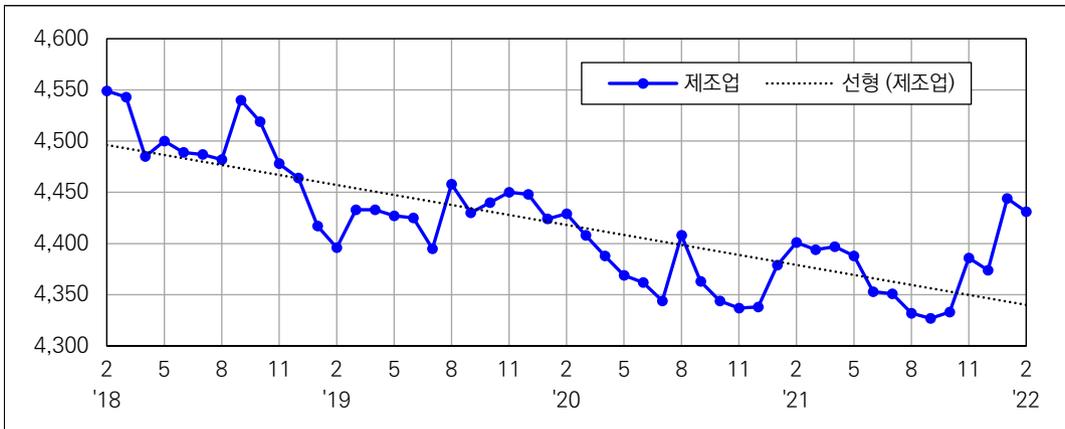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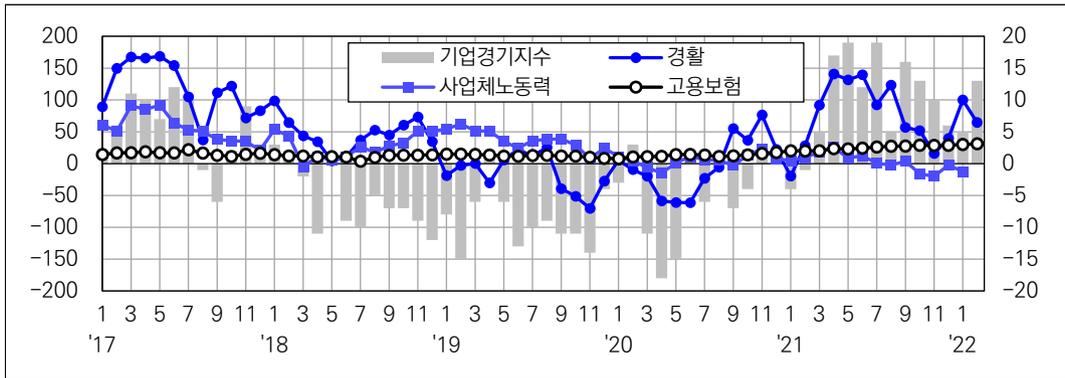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2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6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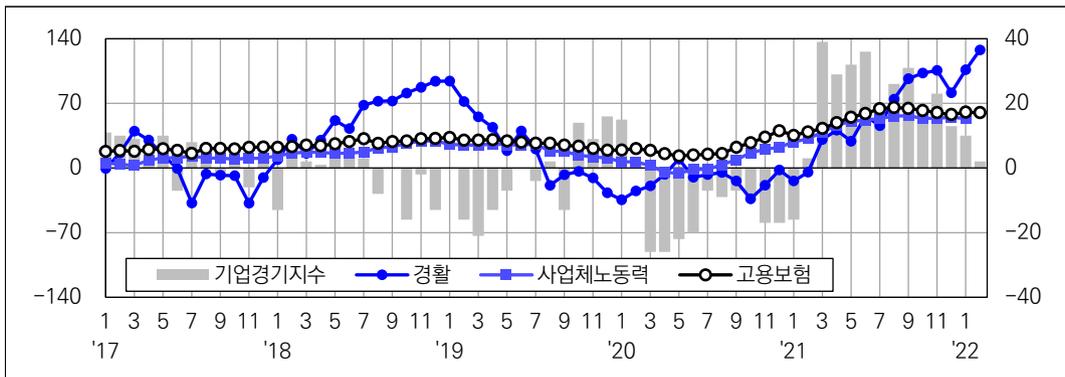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2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88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확대됨.
 - (정보통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임.
 - (공공행정) 일자리사업이 전면 시행되며 모든 고용지표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교육서비스) 최근 경찰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서서히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학원 생산지수는 증가세를 유지함.
 - (보건복지) 모든 고용지표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생산지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0]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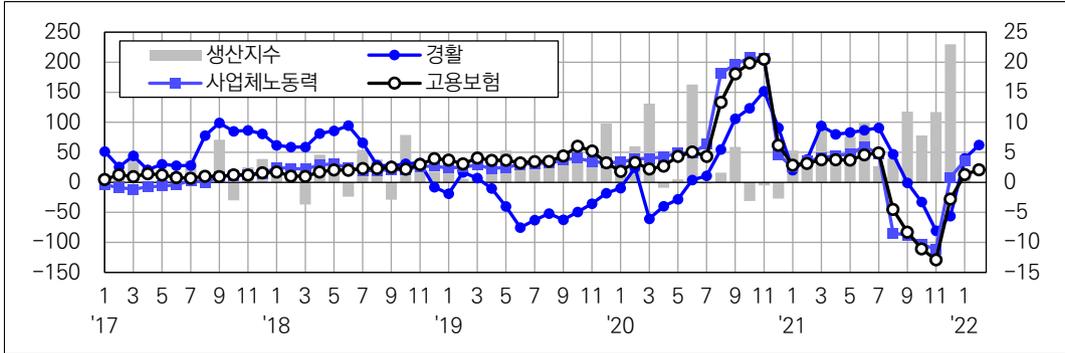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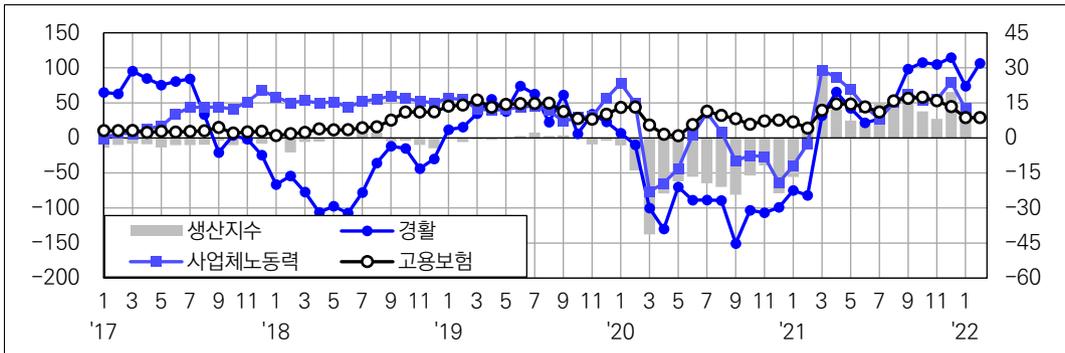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생산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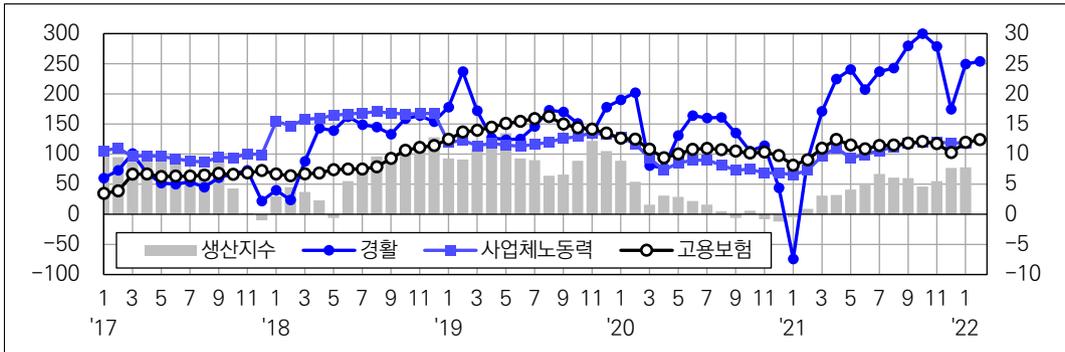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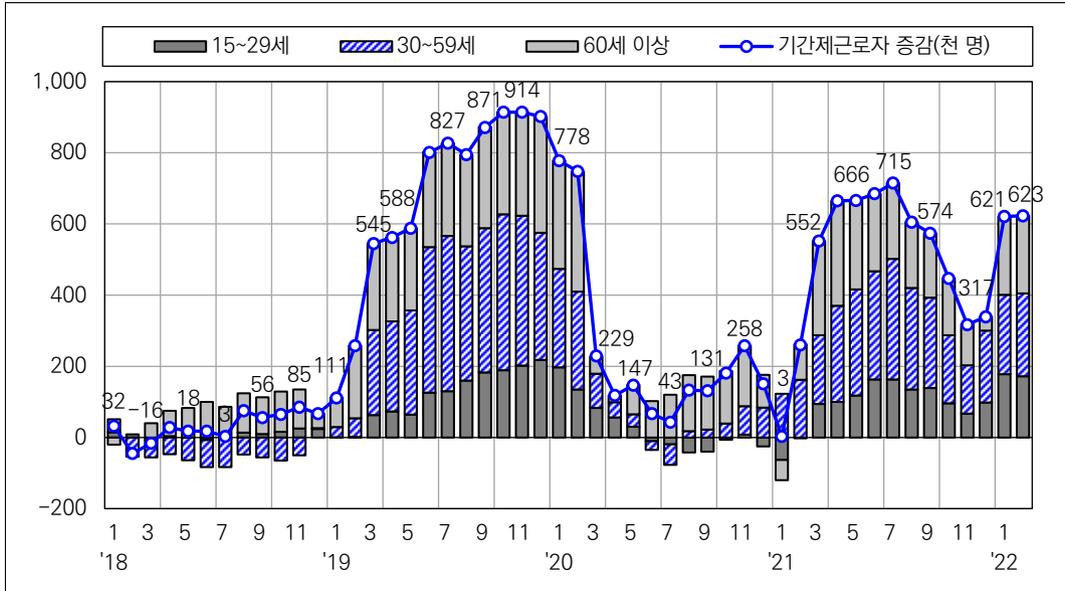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2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2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을 유지함. 기간제는 연령별로도 증가폭의 큰 변동이 없음.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1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 2021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0만 5천 원(4.0%)임.
 - － 2021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57만 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5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 － 2020년 12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특별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 확대됨. 2021년 12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정액급여 상승률 확대와 특별급여 증가에 기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함.
 -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축소는 2020년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기저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함.

◆ 2021년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4.6%, 2.0% 증가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 12월	2021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4,004 (3.0)	4,305 (7.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4,246 (2.7)	4,576 (7.8)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243 (2.5)	3,374 (4.0)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09 (2.5)	210 (0.3)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794 (3.5)	992 (25.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705 (8.2)	1,753 (2.8)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0.3 (0.6)	104.0 (3.7)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2.0	2.4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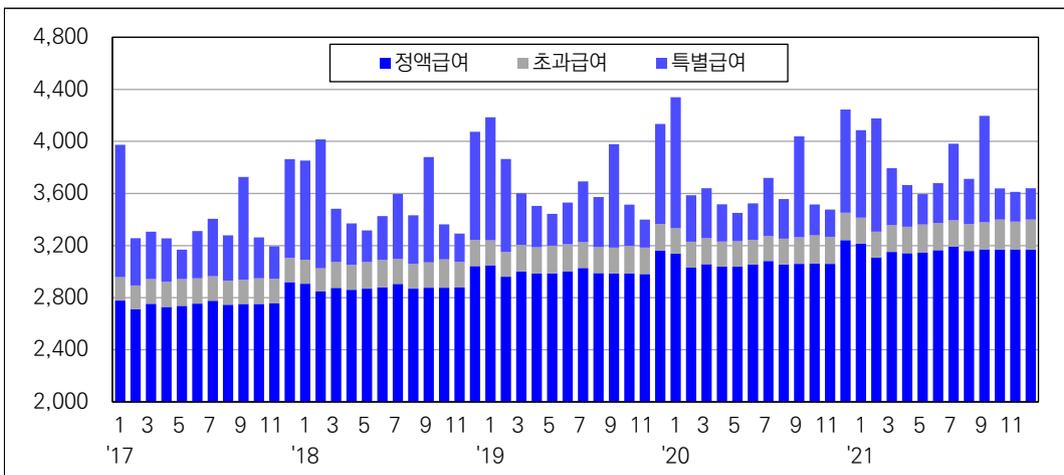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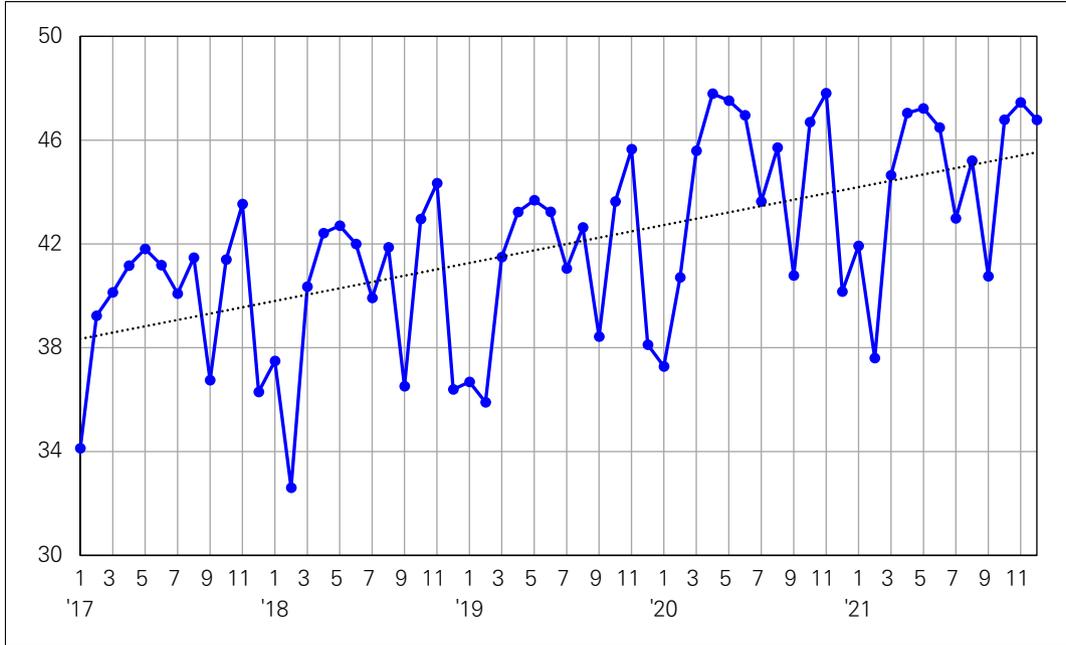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1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0%, 14.6% 증가함.
 -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2%, 15.0% 증가함.
 -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기저효과와 중소기업 사업체는 운수 및 창고업에서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대규모 사업체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41.4%)함.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1%, 9.1% 증가함.
 - － 2021년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3.8%, 6.5% 증가함.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되었던 반도체 관련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확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보임.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12월	12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4.6)	3,139 (4.0)	3,193 (1.7)	3,316 (3.8)	3,193 (1.7)	3,734 (5.0)
	상용 임금총액	3,217(11.5)	3,338(3.7)	3,377(1.2)	3,510(3.9)	3,377(1.2)	3,979(5.2)
	정액급여	2,723(4.7)	2,841(4.3)	2,915(2.6)	3,012(3.4)	2,915(2.6)	3,158(4.0)
	초과급여	172(4.8)	175(2.0)	171(-2.4)	176(2.9)	171(-2.4)	180(-0.6)
	특별급여	322(1.9)	322(-0.2)	292(-9.4)	322(10.4)	292(-9.4)	641(13.6)
	비상용 임금총액	1,422(5.3)	1,505(5.8)	1,615(7.3)	1,671(3.4)	1,615(7.3)	1,715(2.1)
대규모	소 계	5,305(6.5)	5,356(1.0)	5,242(-2.1)	5,582(6.5)	5,242(-2.1)	7,194(14.6)
	상용 임금총액	5,474(6.4)	5,492(0.3)	5,335(-2.8)	5,687(6.6)	5,335(-2.8)	7,364(15.0)
	정액급여	3,735(3.8)	3,843(2.9)	3,847(0.1)	3,973(3.3)	3,847(0.1)	4,381(4.3)
	초과급여	324(0.0)	335(3.5)	340(1.4)	357(5.1)	340(1.4)	349(2.4)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149(-12.5)	1,357(18.1)	1,149(-12.5)	2,634(41.4)
	비상용 임금총액	1,509(7.8)	1,712(13.4)	2,029(18.5)	2,214(9.1)	2,029(18.5)	2,36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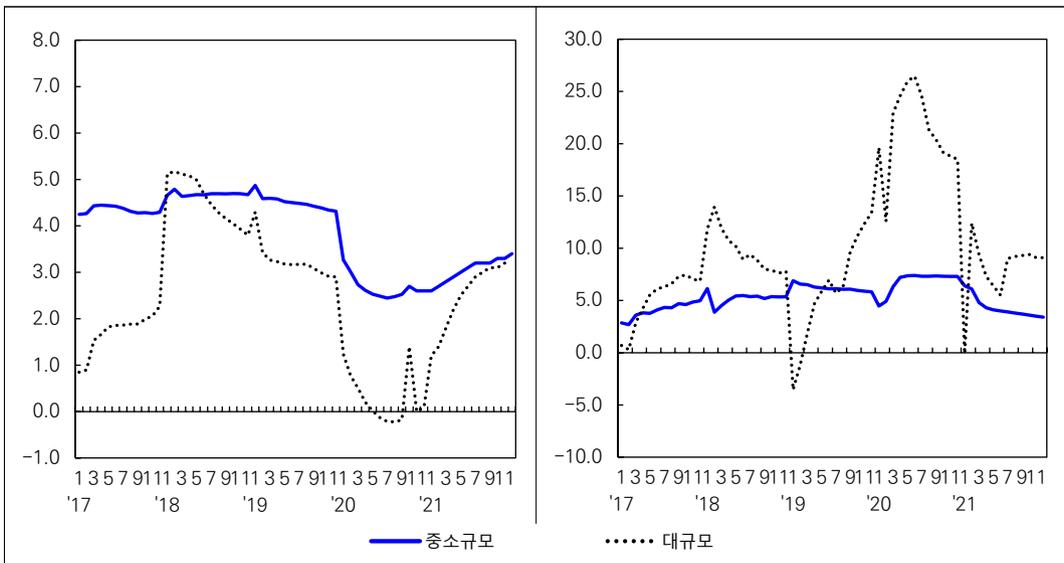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4.3%)과 교육서비스업(-0.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12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91만 1천 원)이고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856만 8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45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21.1%)이며, 제조업의 임금상승 폭도 평균임금상승률(7.5%)을 크게 상회하는 11.9%로 나타남.

○ 2021년 12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0만 7천 원)이며,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70만 2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88만 2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430만 5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12월	12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689 (4.6)	4,004	4,305 (7.5)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415 (2.1)	4,517	4,571 (1.2)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4,239 (6.2)	4,712	5,271 (11.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753 (0.3)	9,314	8,911(-4.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4,094 (5.3)	4,865	5,278 (8.5)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106 (2.4)	3,165	3,327 (5.1)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551 (3.7)	3,900	4,073 (4.4)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795 (7.5)	4,112	4,978(21.1)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905 (1.4)	1,860	2,007 (7.9)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796 (4.0)	4,948	5,293 (7.0)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6,963 (6.7)	8,184	8,568 (4.7)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954 (3.7)	3,107	3,295 (6.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5,106 (4.8)	5,973	6,459 (8.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492 (3.4)	2,608	2,702 (3.6)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355(-0.3)	3,312	3,309(-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3,014 (2.5)	3,059	3,165 (3.5)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994 (4.2)	3,315	3,378 (1.9)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700 (5.4)	2,756	2,882 (4.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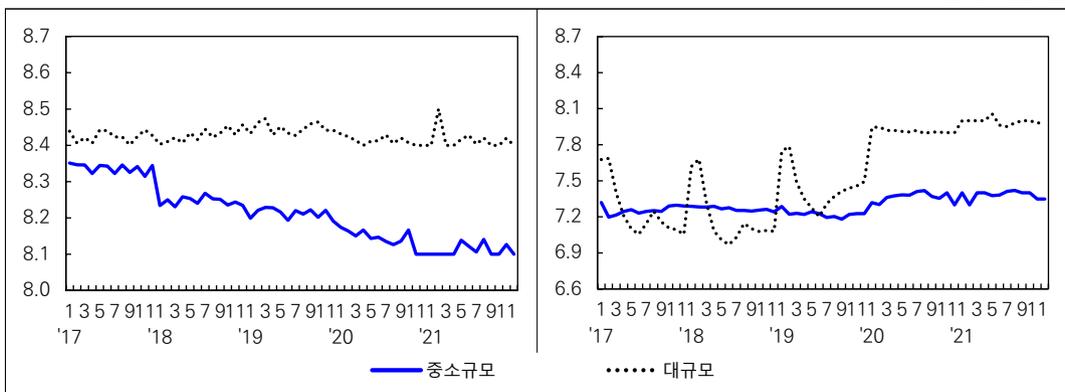
- 2021년 산업별 임금상승률은 교육서비스업(-0.3%)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대비 상승함.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7.5%)이고,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6.7%), 제조업(6.2%)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6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

- 2021년 12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1시간 증가함.
 -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2021년 12월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한 영향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21년 12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 증가함.
 -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72.4시간, 17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8시간, 4.3시간 증가함.

◆ 2021년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7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 증가(연간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12월	1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60.3(0.1)	166.6(1.1)	172.4(3.5)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7.8(0.1)	174.7(0.8)	181.2(3.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60.1(0.2)	166.7(1.2)	173.6(4.1)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7(-1.3)	8.1(-4.7)	7.6(-6.2)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7.4(1.4)	99.5(4.1)	100.6(1.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2.3(-0.3)	168.0(2.1)	172.3(2.6)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3.4(-0.3)	169.2(1.7)	173.7(2.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2.3(-0.5)	158.3(1.8)	163.3(3.2)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1.1(1.8)	10.9(1.9)	10.5(-3.7)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7.9(2.2)	127.7(14.0)	130.2(2.0)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광업(-1.2%)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9%)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여가 관련 서비스업 (8.8%)이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6.2%), 교육서비스업(5.6%) 순으로 나타남.
-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92.2시간)이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191.7시간), 제조업(186.0시간) 순임.
 -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5시간), 교육서비스업(148.5시간)임.
- 2021년 연간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9.9시간)이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176.9시간), 제조업(173.5시간) 순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12월	12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60.7(0.1)	166.8	172.4(3.4)
광업	176.6(0.5)	175.7(-0.5)	181.2	179.9(-0.7)	194.6	192.2(-1.2)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3.5(0.5)	181.8	186.0(2.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1.6(-1.3)	170.9	169.4(-0.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6.9(0.2)	183.9	191.7(4.2)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5.9(-0.7)	140.8	145.5(3.3)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3.8(0.0)	170.5	175.8(3.1)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60.2(0.8)	164.1	170.6(4.0)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48.4(-0.9)	147.8	156.9(6.2)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64.1(0.2)	169.1	176.6(4.4)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61.9(-0.1)	168.7	176.1(4.4)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1.8(-0.8)	179.6	182.6(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61.6(-0.1)	166.2	174.0(4.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62.1(0.2)	168.9	173.9(3.0)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7.2(0.4)	140.6	148.5(5.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8.3(-0.2)	166.2	170.9(2.8)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52.7(2.0)	148.0	161.0(8.8)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62.4(1.3)	168.2	175.6(4.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8건.
 - －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8건 많은 수치임.
- 2022년 2월 조정성립률 0%
 - － 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0.0%에 비해 50.0%포인트 낮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2	8	4	0	0	0	4	2	2	0	0	6	0.0%
2021. 2	0	4	2	1	1	2	0	2	0	0	0	5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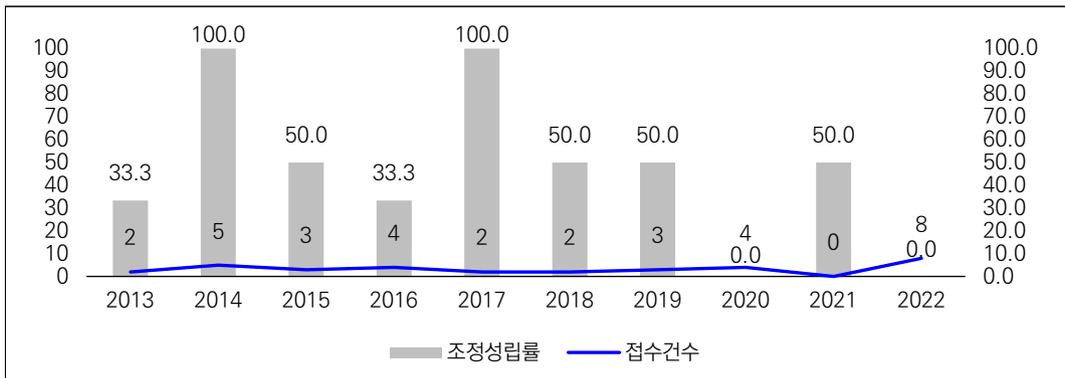
<표 2> 2013~22년 2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3. 02.	2014. 02.	2015. 02.	2016. 02.	2017. 02.	2018. 02.	2019. 02.	2020. 02.	2021. 02.	2022. 02.
접수 건수	2	5	3	4	2	2	3	4	0	8
조정성립률	33.3	100.0	50.0	33.3	100.0	50.0	50.0	0.0	50.0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3~22년 2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53건
 - 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37건)보다 16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4.9%(37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5.1%(69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2.	153	106	33	4	44	3	15	7	488
2021. 2.	137	171	32	8	70	11	32	18	56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3건
 - 2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0%(3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2	3	6	3	0	2	1	0	0	8
2021. 2	2	7	4	0	2	0	1	0	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현대삼호중 노사 2021년 임협 체결

- 2월 15일 현대삼호중공업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7만 1천 원 인상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음.
-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2,176명 중 91.08%가 투표하였고 찬반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은 투표자 66.4%가 찬성해 가결됐음.
- 합의안에는 호봉조정분을 포함해 기본급 7만 1천 원을 정액 인상하고 격려금 200만 원과 무재해 기원 및 안전문화 정착 격려 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음.
- 기본급 3만 1천 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소급해 지급하기로 하였음.
- 현대삼호중공업 교섭은 지난해 7월 상전례를 시작으로 43차례 진행됐음. 지회는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에서 부결된 안과 유사한 제시안을 들고 나와 천막농성과 파업을 하기도 했음.

◆ 화학섬유연맹 22년 만에 해산, 산별노조로 전환

- 2월 16일 화학섬유연맹과 화학식품노조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대의원대회를 열고 화학섬유연맹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 재적 대의원 389명 중 90.5%(352명)가 투표에 참여해 86.9%(306명)가 찬성표를 던졌음.
- 노조는 청산위원회를 통해 연맹 잔여재산 처분 등 청산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음. 2025년에는 산별교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단체협약 실패나 교섭운영현황 등 기본 조사에 돌입할 예정임.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탄소감축과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투쟁,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정신건강 대응 투쟁 등 산별노조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사업도 강화하기로 함.
- 같은 날 대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사공동 조치위원회 설치를 담은 단체협약 공동요구안, 기후위기 대응과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등 노조가 올해 추진할 공동요구안도 확정했음.
- LG Chem노조·대한시멘트노조·대성산업가스노조 등 10개 노조는 산별전환에 반대해 기업노조로 남게 됐음. 미전환 노조 규모는 연맹 전체 조합원의 12%(4,500여 명)임.

◆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42명 사망

- 2월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총 42명임.
- 지난해 같은 기간(2021년 1월 27일~2월 26일) 대비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줄었음.
- 건설업의 사망자 수가 15명으로 전년 동기(30명)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큼. 반면 제조업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전년 동기(13명)보다 늘었음.
- 고용부는 사망사고 35건 가운데 9건(사망자 15명)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음.
- 건설업이 5건, 제조업은 4건임. 나머지 26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됨.

◆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 10명 중 6명 “화장실 이용 불편해 물도 안 마셔”

- 3월 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 160명에게 화장실에 대해 설문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 응답자 3명 중 1명(30.6%)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었다고 답변했음. 그 이유로는 ‘화장실이 너무 멀거나 인근에 없다.’ ‘업무환경 특성상 화장실 가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는 답변이 주로 나왔음.
- 일하는 공간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야 하는 시간은 6~10분이 응답자의 32.0%(47명), 10분 이상이 6.8%(10명)였음.
- 화장실 이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더럽다.’(36.9%·59명)가 꼽혔음. 이어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 ‘손 씻을 데가 없다.’ 등의 순이었음. 8.1%(13명)는 일하는 현장에 화장실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남자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참는다고 했음.
-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 물을 안 마셔본 응답자는 65.7%(105명)나 됐음. 식사를 조절해본 경우도 31.3%(50명)였음.
- 응답자 중 34.4%(55명·중복 응답)는 지난 1년간 의사에게 방광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만성 변비, 질염, 요실금 등도 주요 진단명으로 언급됐음.

◆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 택시 기사 등도 50만~150만 원 지급

-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3,000억 원이 증액된 16조 9,000억 원 규모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요 예산은 10조 원임.
-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함.
- 현행 80% 수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90%로 상향됨. 대상은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 60만 개를 포함해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 소상공인이 90만 개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음.
-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68만 명도 총 4,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됨.
- 기존에 지원받았던 수급자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규 12만 명은 소득 감소에 대한 심사 후 100만 원이 지급됨. 법인택시 기사 7만 6,000명과 전세버스 등 버스기사 8만 6,000명은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을 각각 받게 됨.
- 4만 명가량의 저소득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받음.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은 물론 인디밴드 공연, 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 콘텐츠와 영화 제작에도 지원금이 제공됨. 요양보호사 36만 8,000명에게는 수당 20만 원이 지급되고, 가족돌봄휴가비가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 지원됨.

◆ 제주 전세버스 노동자 97% “고정급여 없다”

- 2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전략조직사업단은 제주도청 앞에서 개별 전세버스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도내 전세버스 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 응답자 100명 중 97명이 ‘고정급여가 없다.’고 답했고 회사 직영 노동자조차 고정급여가 없다고 응답했음. 또 월 총수입의 경우 150만 원이라는 응답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음.
-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지입료를 꼽았음. 응답자 55명이 ‘부당한 지입료’라고 답했고 30명은 ‘부당배차’를 답했음. 자동차를 압수당한 사례(16명)와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강제변환한 사례(6명)도 나타났음.
- 전세버스 운행제도에 대해서는 98명이 ‘개별 전세버스 제도적 보장’이라고 응답했음. 지원

정책(복수 응답)에서는 ▲차량 구입 시 세제혜택 지원 및 유류비 보조금 지원 ▲취·등록세 혜택 ▲주차장 지원 ▲주차로 지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음.

-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에서 응답자는 지입 노동자 87명, 직영 노동자 13명 등 100명(전체 1,500여 명 중 6.7%)이고 소속 업체는 총 51개 중 33개 회사임. 운행행태 및 노동환경, 운송조합비 등 피해 유형별, 현행 제도 인식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했음.

◆ 지역 기업 10곳 중 7곳 “지방소멸 위협 느껴”

- 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513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 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에 대해 ‘최근 더욱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나 지역 격차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음.
-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음.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터에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구인난이 심해진 현실을 반영함.
- 그 밖의 애로 사항으로는 ‘판로 개척’(14.0%), ‘자금 조달’(10.9%), ‘기술 개발’(7.2%), ‘사업 기회’(7.0%), ‘물류 인프라’(5.1%) 등이 꼽혔음.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로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55.0%)이 최우선으로 꼽혔음. 이어 ‘대폭적인 조세 감면’(38.4%), ‘지역 인재 육성’(38.2%), ‘지역 연구개발(R&D) 지원 확대’(34.1%), ‘수도권 규제 강화’(14.4%), ‘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원’(12.3%) 순이었음.

◆ 청년 41%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 2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 4,114명을 대상으로 2021년 7~8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가 총연간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만~4,000만 원 미만(32.4%), 4,000만~6,000만 원 미만(12.1%) 순이었음. 연간소득 평균은 2,223만 원으로 집계됐음. 연간소득에 대해 응답자의 48.6%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음.
- 응답자 63.9%가 자가나 전·월세 등 본인 명의 거주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유형별로 보면 자가(38.9%), 전세(32.8%), 보증금 있는 월세(26.4%) 등 순이었음. 보증금 없는 월세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 주택을 소

- 유한 응답자의 46.3%는 전부 본인 스스로 거주 주택 비용을 마련했다고 답했음.
- 청년의 상당수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응답자의 52.9%가 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재산 중 주식, 채권, 펀드 규모는 평균 1,15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21.7%에 달했음.
 -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2.6%로, 그렇지 않다(19.2%)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음. 자신이 빈곤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34.3%는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을 낮게 봤다. 탈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자는 28.5%에 그쳤음.

◆ MZ세대 꿈은 최악 일자리 “특하면 야근하라는 회사”

- 3월 6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발표한 '청년 기피 5대 일자리 조건'에 따르면 '정시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이 4점 만점에 2.94점으로 가장 거부감이 높다고 조사됐음.
- 이번 조사는 청년 8,353명을 대상으로 '나는 ○○○하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라는 문장에 1점(매우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음. '나는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에 동의하는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임.
- 비정시 근무에 대한 비호감 정도에 남녀 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남녀 모두 3점(그렇다)과 4점(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세부적으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6.6%포인트, 2.4%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또 일반대 학생이 전문대 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응답자보다 더 거부감이 높았음.
- '월급이 기대 이하인 회사에 취업하고 싶지 않다'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대 학생이 69%, 고교 졸업생 66%, 전문대 학생 62%였음.
- 비정규직에 대한 전공별 거부감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60% 이상이 거부감을 보였음. '주 5일 근무가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에는 절반을 살짝 넘는 응답자(52%)가 동의했음.

◆ 5명 미만 사업장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 3월 10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광역시·도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을 분석했음.
- 전체 노동자 2,064만 7천 명 중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8만 4천 명(17.8%)임.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은 48.5%, 여성은 51.5%였음.

- 고용형태별 분석 결과 정규직은 39.5%, 비정규직은 60.5%였음. 사업장 규모별 연령층을 살펴봤더니 5명 미만 사업장과 10~29명 사업체에서만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더 많았음.
- 5명 미만 사업장 청년 노동자는 100만 1천 명(27.2%), 고령 노동자는 116만 7천 명(31.7%)이었음.
-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75만 원인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이보다 94만 원 적은 181만 원으로 분석됐음.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72만 6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4% 규모였음.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101만 7천 명(27.9%)이다. 5명 미만 노동자 10명 중 3명가량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임.
- 전체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8.7시간으로 나타났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03만 4천 명(5.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0만 1천 명(4.9%)이었음.
- 5명 미만 사업장 주당 노동시간은 35.2시간으로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10명 중 1명꼴(9.9%)인 36만 4천 명이 초단시간 노동자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